



책문-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김태완 편저  
소나무 | 2만원

### 왕과 조선시대 청년 지식인

## 목숨 걸고 세상을 논하다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외척의 교만과 횡포를 제재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궁녀들이 규정에서 벗어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금해 나랏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십시오.”

1611년, 서른다섯 살 유생 임숙영이 조선의 군주 광해군에게 책문을 받는 현장. 광해군은 입진왜란 직후 피폐해진 백성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이나고 질문한다. 하지만 임숙영은 왕에게 되묻는다.

“왜 스스로의 실책과 국가의 허물은 거론하지 않으십니까? 곧바로 남김없이 지적하겠습니다. 국정이 혼란스러운 원인은 모두 전하가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의 잘못이 곧 국가의 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찬 반문은 계속된다. 언로(言路)가 막혀있고, 인사가 엉터리라는 직언까지 토해낸다.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책문(策問). 대과(大科) 최종합격자 33명의 등수를 가리기 위해 임금이 직접 출제 한 국가현안에 대해 응시자가 대책을 제시하는 시험인 책문은 이처럼 국가를 책임진 통치자의 현실적 고뇌와 예비 관료들의 치열함이 묻어 있다.

《책문-시대의 물음에 답하라》는 조선조 500년사의 유명한 책문 15개를 뽑아 정리했다. 세종 중종 명종 선조 광해군 등 다섯 임금과 신숙주, 성삼문, 조광조 등 대과 합격자 13명이 주고받은 책문을

한글로 풀고,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해설을 곁들였다.

때문에 이 책에는 왕과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의 국가경영책이 오롯이 투영돼 있다. 왕은 당대의 고질병을 질문을 통해 우회적으로 고백했고, 예비관료들은 ‘시대적 물음’에 대한 정치적 포부와 구상을 당차게 밝혔다.

우선 왕의 질문들에서는 처절한 위기

라'고 과감하게 대답한다. 중종 2년(1507년) 문과시험에서 권벌(1478-1548)의 대답은 흐지부지한 당시 개혁정치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를 묻는 질문에 ‘시작을 잘 했으면 끝마무리도 잘 해야 한다’며 왕의 우수부단함을 꼬집었다.

흥미를 끄는 책문도 있다. 사육신이 된 성삼문, 그와 반대로 수양대군의 왕위찬

악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며 언로의 개방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석형 또한 중국 북송의 시인 소식의 말을 인용, ‘깃털처럼 보잘것없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책문은 이처럼 앞으로 관료가 될 청년 지식인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나라를 위해 활약할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이들이 그리는 국가의 청사진에서 나라사랑도 읽을 수도 있다.

지은이 김태완 씨는 책문과 고서들을 일일이 파헤치며, ‘과거’를 ‘현재’의 문제로 옮겨놓는다. 지금 21세기의 우리에게도 책문 속의 절박한 문답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박광전(1526-1597)이 정벌과 화친 사이에서 국가의 존립위기와 대의명분을 고뇌하는 선조에게 명쾌한 해답을 던진 대목이 그렇다. ‘정벌은 힘, 화친은 형세에 달려 있다’고 전제, ‘먹을 쌀이 적어 저절로 귀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진언한 박광전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가 대미관계나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 곱씹어 볼 부분이다. 또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를 묻는 중종의 질문에 김의정(1495-1548)은 ‘재능보다 덕을 우선해야 한다’며 사신의 능력은 ‘덕행’에 달려있다고 말한 대답도 마찬가지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의식을 집착할 수 있다.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명종)’,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세종)’, ‘정벌이나 화친이나(선조)’ 등에서 당시 절실했던 국가적 난제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젊은 인재들은 대놓고 임금의 폐부를 찌른다. 광해군이 1609년 증광문과에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는 방법’을 묻자, 조위한(1567-1649)은 ‘겉만 번지르르한 10가지 시책들을 개혁하

탈에 가담해 영의정까지 오른 신숙주, 정치적 다름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던 당대 문장가 이석형. 이 셋은 젊은 시절 세종 임금 앞에서 책문을 함께 보았다.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을 묻는 세종의 책문에 세 명은 각기 다른 대책을 내놓는다. 성삼문은 ‘마음이 정치의 근본이고 법은 정치의 도구’라며 ‘군주가 먼저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답한다. 한편 신숙주는 ‘법에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그것은 마치 오묘한 선율에도 음방한 음



조선조 500년사의 유명한 책문들이 담긴 고서들. 젊은 인재들이 쏟아낸 ‘나라사랑’이 이 책들속에 고스란히 묻어있다. ‘사천제공-소나무’



따뜻한 카리스마-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이종선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1만2천원

“당신은 아직도 강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가? 은유하고 차분하면서 인간적이면 성공하기는커녕 사람들 사이에서 치인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시대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따뜻한 카리스마》의 저자 이종선 씨는 책의 서문에서부터 독자들에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스스로 답을 하고 나간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13년 동안 객관적인 이미지의 힘을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컨설팅하면서 수많은 CEO와 유명인사들을 만났다. 그 속에서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시대 새롭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이미지 요소들을 분석했다. 그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필자는 해병대 장교로 제대한 후 약 35년간 금융계에서 종사하며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의 창출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CEO의 유형으로 군대의 용어를 빌어 용장(勇將), 지장(智將)과 덕장(德將)으로 나눌 수 있겠다. 저자 이종선 씨의 <따뜻한 카리스마>는 ‘덕장(德將)’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 강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최고경영자들의 머리에는 직원들과 관계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나 대내외의 인간관계에서 ‘따뜻한 카리스마’의 개념은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새로운 개념이며 필요함이다.

저자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들은 자신을 개방해서 상대를 통제하는 자기 표현력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자부하게 만드는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고 기술하고, 이러한 ‘따뜻한 카리스마’의 구성요소로서 10가지를 예기한다.

자기 표현력, 공감능력, 신뢰, 설득력, 겸손, 거침의 기술, 자기극복, 유머, 인연, 비전 등이다. 이상 10가지의 구성요소와 함께 저자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소유하는 법으로 3단계의 지침을 제시한다. 1단계로 긍정적인 심상화(象象)를 만들어나라. 2단계, 매력 있는 태도와 화술을 갖춰라. 3단계, 성공한 사람으로서 행동하라 등이다.

레오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 ‘세 가지 질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작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노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인간관계와 정보의 다원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CEO의 덕목으로 꼽고 그 구성요소와 단계적인 소유법을 강조하고 있다.

선불교(禪佛敎)에서의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의 마음으로, 병아리가 태어날 때 껍질 속의 병아리와 어미 닭이 동시에 껍데기를 쪼아 깨는 경지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생활화한다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기주장과 갈등과 이로 인한 이해의 충돌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종선 씨의 《따뜻한 카리스마》를 이 시대의 CEO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경영자들에게 필독을 권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성부 (심층컨설팅 회장)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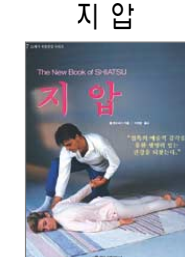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 과 만나십시오

<21세기 자연건강사리리즈>



폴란드버그 지 / 이의명 역  
496면 변형 / 192쪽 / 21,500원  
하남출판사

명상수행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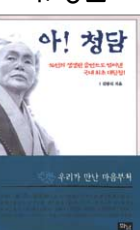
정재성 역 / 신국판 / 635쪽 / 230,000원  
한국백일리성전협회

행복하게 사는 법 이룸답게 죽는 법



정재 지음  
신국판 / 240쪽 / 28,000원  
행복한세상

아! 청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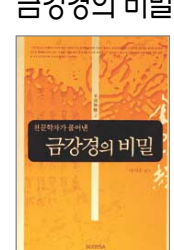
김광식 지음 / 신국판  
352쪽 / 12,000원  
희남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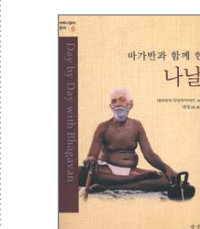
정민희 3인 지음 / 국판변형  
282쪽 / 2권 / 15,000원  
휴머니스트

전문학자가 풀어 낸  
금강경의 비밀



이시우 지음 / 신국판  
348쪽 / 2권 / 13,000원  
도파안사

바가반과 함께 한 나날



대버려져 무덤라이온 기록, 대영 옮김  
신국판 / 428쪽 / 2권 / 13,000원  
탐구사

선어삼백칙(禪語三百則)



지나선 역  
신국판 / 428쪽 / 2권 / 12,000원  
여시아문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입니다 ★